

“수월 스님, 경허 스님 법제자 아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12일 '제2회 경허선사 바로 알기 학술세미나'에서

“수월 스님은 선종일치와 두타행의 실천자로 다라니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경허 스님의 간화선 위주 수행과는 다르며 경허 스님의 간화선을 계승한 것도 아니다.”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서 경허 스님의 제자로는 수월, 만공, 해월 스님이 꼽힌다. 경허 스님이 주석한 서산 천장암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10월 12일 서산 천장암(주지 허정)이 개최한 '제2회 경허선사 바로알기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광식 교수는 이날 '수월선사의 정체성과 경허의 전법' 논문을 발표하며 수월 스님을 경허 스님 법제자로 보는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의의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먼저 만공 스님과 해월 스님의 전법계통이 있지만 수월 스님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수월 스님은 전법계통이 없다”며 “한암 스님이 1931년 ‘경허의 생애와 사상’을 불교지에 쓴 일대기에도 경허 스님의 제자로 해월, 만공, 한암, 침운 스님을 꼽고 있다. 법제자 명단에 수월 스님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운허 스님의 1961년도 불교

사건에도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제자가 아니라 경허 스님의 사형인 태허 스님의 법제자로 나온다. 서경수 박사의 1970년대 글에도 태허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선불교통사>에 수월 스님에 대해 경허 스님의 법을 들은 것으로는 나와도 법제자라는 말은 없다. 또 수월 스님은 고행·난행하는 스님으로 나오는 데 이는 두타행으로 화두참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월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는 최근 발견한 진포공이란 일제시대 일본학자가 수월 스님과 대화한 내용을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당시 진포공이 수월 스님에게 물어보니 수월 스님이 다라니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 수월 스님이 대비주를 통한 이후 선수행을 했어도 경허 스님의 간화선 위주 수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수월 스님의 수행은 선종일치와 치열한 두타행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 제자로 포함되게 된 까닭은 최인호도 그렇게 보았듯 만공(월면) 스님과 해월 스님 등 월자 들림의 작용이 컸다”며 “최인호 별 제 전 <할>에서 수월 스님에 대해 경허 스

님의 법제자가 아니라 점이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경허 성우의 목룡 가풍과 심검 선지’를 통해 경허 스님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법화와 행화를 나란히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경허 스님의 목룡 가풍은 하늘에 헤가 하나이고 나라에 임금 하나이듯 사람 중의 사람인 용상 대덕을 길러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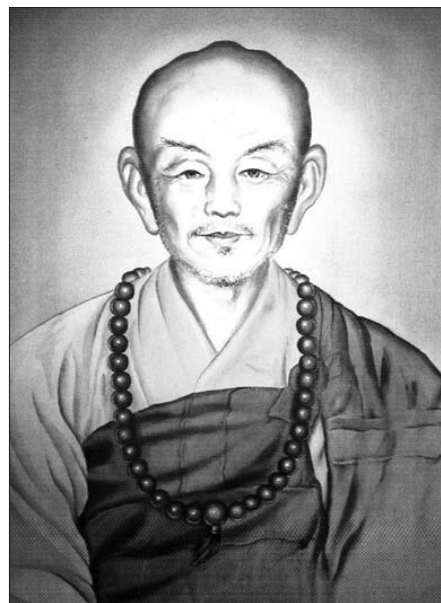
소설가 최인호도 잘못 인식

태허 스님 법 이어 두타행 정진

선종일치 등 새 가풍 연 선지식

자 한 가풍이었다”며 “오도가에서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구나...’라고 읊은 것은 이러한 용상 대덕의 전수자가 없음을 탄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선사의 면모는 ‘좋은 때는 부처님보다 좋았고, 나쁠 때는 호랑이보다 나쁘다’는 세간의 평가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났다”며 “자유로운 살림살이와 사교방식에 비판도 많지만 한암 스님이 스승인 경허 선사를 ‘대장부의 뜻으로 갖춰 자성을 철저히 깨달아 제일 가는 공덕을 성취해 큰 지혜 광명의 의취로 저 오백 세 후까지 강대하게 유통시킬 인물’이라고 평하듯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었음이 분명하다”고



수월 스님 진영.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범부들이 볼 때는 경허 선사의 법과 행화 사이에는 마찰이 있지만 선사의 법의 세계에서는 윤회의 탄력이 더욱 발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현지 연구원(동국대 박사과정)도 ‘경허의 탄생지와 출생년도’에서 선사의 출생년도를 1846년이 아닌 1849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산 천장암에서 열린 제2회 경허선사 바로알기 학술세미나에는 덕승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등 수덕사 스님들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석사 불상, 7세기 신라 불상 모본”

이주민 연구원, 동양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기

영주 부석사의 소조불상(국보 제45호) 연대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불상조성의 모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주민 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동양미술사학회(회장 김영희)가 10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영주 부석사 소조불상의 연원 등을 밝혔다.

영주 부석사 소조불상은 2.74m의 대형 불상으로 조성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됐다. 이 연구원은 이날 부석사 소조불상을 7세기말 조성된 일본 최고(最古) 소조 불 당마사 본존불과 비교하며 조성연대를 7세기 말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당당한 가슴과 짙은 허리, 풍만한 상호,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이 당마사 본존불과 부석사 소조불 좌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대좌가 백제와 적기단 영향을 받은 외적대좌인 점과 수미단 인공에서 발견된 녹유전이 단순한 문양을 띠며 7세기 말 제작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가 안압지 금동팔발 등 통일신라 초기 불상들과 닮았다”며 부석사계 불상이 신라말 궁에 세력이었던 중부류 중심



영주 부석사 소조불상(국보 제45호)

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는 경주류 중심으로 한 석굴암계 불상양식과 또 다른 양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해준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사의 ‘연해주 발해 유적 복원 건물지군에 대한 일고찰’, 이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사의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의 조사성과’, 손희정 중국미술학원 연구원의 ‘서용도의 정치적 역할과 미술사적 의의’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상담이 불교 포교에 미칠 영향과 과제?

동방대학원대 10월 29일 제2회 불교문예연구소 학술세미나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가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교내 M303 세미나실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백원기 불교문예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박찬용 동국대 강사가 ‘불교상담, 그 필요성과 적용 영역’을 주제발표한다. 지정 논평은 이용권 조계종 사회복지연구소장이 맡았다.

이어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강의교수가 ‘아유르베다와 불교상담의 소통 가

능성’을 발표하고, 이남경 로터스 명상심리연구소장이 논평한다.

또 신승철 박사(전연세대 의대교수, 큰사람 노인병원장)가 ‘불교 상담치료에서 치료사의 자세’를 발표하고 권경민 불교여성개발원사무위원이 논평한다.

소장 차차석 불교문예학과 교수는 “수행과 중심의 불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담’을 통해 불교가 대중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원측 스님 주제 6차례 연속 워크숍

불교학연구회 내 학술연구모임인 ‘공부회’는 유식학의 대가인 신라 고승 원측 스님을 주제로 연속 워크숍을 연다.

공부회 워크숍은 10월 26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1층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원측의 생애와 전기’를 주제로 첫 모임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워크숍은 이어 11월 2일과 9일, 23일, 그리고 12월 7일과 14일에 잇달아 열리며 원측 스님의 사상과 논쟁, 저서에 대한 관련 서적을 읽고 발제 토론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워크숍은 매일 신진연구자들이 리더가 돼 각기 다른 주제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첫 모임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운허 스님 역경, 공동체 정신서 발단”

이병욱 박사, 운허기념사업회 1주년 학술대회에서 주장

초대 동국역경원장을 지내는 등 평생을 한글 역경사업에 매진했던 운허 스님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운허기념사업회는 10월 12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이 이해하고 해석한 경전의 세계’를 주제로 사업회 출범 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욱 고려대 박사는 운허 스님의 역경사업 이면에 스님의 동업(同業) 정신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박사는 “운허 스님의 동업 정신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는 개인적 업의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공동체 정신”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운허 스님은 불자들의 사회적 봉사를 강조했으며 불교공동체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운허 스님은 신심과 원력, 경전공부의 관계에 주목했다”며 “운허 스님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불보살이

듣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불교계 개혁을 위해 보살행과 가피력이 서로 만나는 일이 바로 역경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운허 스님은 신심이 늘어나면 신군이 생기고 신군이 더욱 늘어나면 신력이 생겨나서 궁극에는 부처가 되고 ‘진정한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며 “운허 스님은 불공에 대한 관점을 사회봉사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런 관점에서 운허 스님이 1938년 당시 불교계를 비판했으며 그 대안으로 청년학인이 가져야할 3가지 마음 자세와 역량을 제시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한국불교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빠져 교단을 망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日 신수대장경 근본은 고려대장경”

나카니시 교수, 14일 대장경축전 학술대회서 주장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의 근본은 한국의 팔만대장경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카니시 유지 일본여자대학 교수는 10월 14일 경남 창원CECO 열린 대장경축전 기념 국제학술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나카니시 교수는 ‘문화적 가치의 상대성과 문화관광’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오늘날 불전의 국제표준전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條大藏經)은, 팔만대장경판본을 근본으로 삼아 만들어졌다”면서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에 있어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도 걸출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어 “팔만대장경은 지역을 초월한 국제성, 시대를 넘은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도 특별할 만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주 동의대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대중성과 문화콘텐츠의 기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려대장경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가 지금까지 세편에 불과하고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며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동시에 등재된 해인사의 장경판전과 고려대장경의 위상과 가치에 비해 콘텐츠 개발과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제학술포럼에서는 최광식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시노자키 히로시(JTB 종합연구소), 이훈 교수(한양대 관광학부), 한경구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다.

신종일 기자

한국불교대학

대 관 음 사

극락납골 봉안당

- ①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①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①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 ①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①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 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희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희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이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구역 1번, 2번 출구

사찰법당앰프 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7기
-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